

보도일시 (인터넷) 2023. 12. 28.(목) 12:00,
(지면) 2023. 12. 29.(금) 조간

배포 2023. 12. 28.(목) 06:00

2024년 올해의 섬으로 서해 영해 지킴이 '상왕등도' 선정

- 해수부·행안부, 영해기점 중요성 알리기 위해 공동으로 올해의 섬 선정

해양수산부(장관 조승환, 이하 해수부)와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 이하 행안부)는 「2024년 갑진년(甲辰年) 올해의 섬」으로 전북 부안군에 위치한 영해기점 유인섬인 '상왕등도(上旺嶝島)'를 선정하였다.

영해기점은 우리나라 영해, 배타적 경제수역, 대륙붕 등의 범위를 정하는 시작점으로, 해양관할권 수호 측면에서 매우 중요한 가치를 지닌 곳이다. 이에, 해수부와 행안부는 영해기점의 중요성을 널리 알리기 위해 2023년부터 2029년까지 7개의 영해기점 유인섬을 '올해의 섬'으로 선정하여 홍보하기로 했으며, 2023년 '가거도'에 이어 2024년 올해의 섬으로 '상왕등도'를 선정하였다.

'상왕등도'는 부안 격포항에서 위도를 거쳐 뱃길로 4시간(약 32km) 걸리는 곳에 위치하고 53명이 거주하는 섬으로, 백제 의자왕의 아들 풍이 오른 섬이라는 뜻에서 이름이 유래되었다. 이 섬은 용문암 등 다양한 자연경관을 간직하고 있고, 서쪽 바닷속 퇴적물에서 1996년 매머드의 어금니 화석 두 점이 발견돼 연구 가치가 높은 섬이기도 하다.

상왕등도는 영해기점 섬으로, 대한민국 영해가 시작함을 알리기 위해 북서쪽 절벽 아래에 태극기가 부착된 침성대 모양의 영해기준점 표지가 설치되어 있다. 또한 상왕등도는 국가관리 연안항으로도 지정되어 조업하는 어민들의 든든한 피난처이자 길잡이가 되어주고 있다.

허만욱 해수부 국제협력정책관은 “과거 섬은 단순히 살아가는 삶의 터전에 불과했으나, 오늘날 섬은 해양영토, 수산·자원, 생태·환경·관광 등 다양한 가치를 창출하는 공간으로 탈바꿈하고 있다.”라며, “정부는 앞으로도 섬의

보전·이용, 개발에 대한 새로운 수요를 적극 반영하며 섬의 가치를 높이는 데 앞장서겠다.”라고 말했다.

임철언 행안부 균형발전지원국장은 “정부는 우리나라 영토 수호에 이바지하는 영해기점 섬 주민들의 정주여건 개선을 위해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실효성 있는 지원방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상왕등도를 비롯한 영해기점 유인섬과 육지로부터 50km 이상 떨어진 유인섬 등 국토 외곽에 위치한 섬 주민들의 정주여건 개선을 위해 마련한 「울릉도·흑산도 등 국토외곽 먼섬 지원 특별법안」이 2023년 12월 2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여 1년 후 시행될 예정이다.

상왕등도를 포함한 우리나라 섬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해수부 무인도서 종합 정보제공시스템(<http://uii.mof.go.kr>)과 행안부 홍보 누리 소통망(인스타그램) ‘왓섬(@what_island_)’에서 확인할 수 있다.

담당 부서 <총괄>	해양수산부	책임자	과 장	임채호 (044-200-5350)
	해양영토과	담당자	사무관	장민철 (044-200-5355)
담당 부서	행정안전부	책임자	과 장	송정아 (044-205-3530)
	균형발전진흥과	담당자	사무관	정태욱 (044-205-3524)



다시 도약하는 대한민국
함께 잘사는 국민의 나라

서해 영해 지키미
상왕등도

행정안전부

해양수산부

2024년 1월
올해의 섬

**대한민국 영해의 시작을 알리는
영해기점 표지**

**용문암 등 다양한 해안 지형 지질
경관을 간직한 상왕등도**

**메머드 어귀니 화석 두 점
발견된 연구 가치 높은 섬**

상왕등도

해양수산부와 행정안전부는 전북 부안군에 위치한
영해기점 유인섬, 상왕등도(上王燈島)를 '2024년 갑진년(甲辰年) 올해의 섬'으로 선정하였다.
* '23년부터 '29년까지 7개의 영해기점 유인섬을 '올해의 섬'으로 선정하여 홍보

백제 의자왕의 아들 풀이 배를 타고 오른 섬이어서 '왕이 올라간 섬', 상왕등도는 고도 240m, 면적 0.44㎡인 섬으로, 부안 격포항에서 약 32km 떨어진 곳에 있다. '용문암' 등 다양한 해안 지형 지질 경관을 간직하고 있고 섬 서쪽 수심 10~30m 바底的 표층 퇴적물에서 1996년 메머드의 어금니 화석 두 점이 발견돼 연구 가치가 높은 섬이기도 하다.

상왕등도는 우리나라 서해중부의 영해와 배타적 경제수역, 대륙붕을 설정하는 중요한 영해기점이다. 이처럼 대한민국 영해가 시작함을 알리기 위해 상왕등도 북서쪽 절벽 아래에는 태극기가 부착된 청상대 모양의 영해기점 표지가 설치되어 있다. 또한, 국가관리 연안항으로 지정되어 조업하는 어민들의 든든한 피난처이자 길잡이가 되어주고 있다.

상왕등도는 부안 격포항과 위도로 이어지는 뱃길에 속해있다. 격포항 인근 채석장은 국가지질공원이자 국가명승지로 바다와 해안, 산지에 경관과 생태, 역사, 문화가 두루 배어있어, 가족 단위 관광객이 많이 찾는 곳이다.

한편, 국토 외곽에 위치한 '민심' 주민들의 생활환경 개선, 소득증대 지원 등 정주 여건 개선을 위한 '올름도·흑산도 등 국토외곽 연섬 지원 특별법'이 올해 12월 2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여 1년 후 시행될 예정이다.

* 상왕등도를 비롯한 영해기점 유인섬과 육지로부터 50km 이상 떨어진 유인섬 등

상왕등도를 포함하여 우리나라 섬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해수부 무인도서 종합정보제공시스템과 행안부 홍보 누리소통망 'What.섬'에서 확인할 수 있다.

www.mof.go.kr | blog.naver.com/koreamof | www.facebook.com/mofkor/photos

전라북도

부안군청
BUAN-GUN